데이트와 예배의 공통점

(요4:20~30)

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5.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27.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28.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데이트와 예배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데이트와 예배의 공통점'
데이트와 예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말이 바로 남녀의 데이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녀의 데이트 상황을 벗어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참으로 데이트가 데이트답게 되기 위해서 있어야 될 어떤 심리적인 요건을 한번 우리가 따져봅니다.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안달이 날만큼 보고 싶어야 합니다.
아주 달아올라야 됩니다, 보고 싶어서…,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데이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삼일 만에 만나는데 이틀 동안 너무 보고 싶어서 죽을 뻔 했어요.
이게 데이트를 데이트답게 하고, 데이트가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첫 번째 심리적 상태입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나의 애인이, 남자친구가 나를 보고 예쁘다고 할까?
이게 두 번째 마음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자친구가 나를 봤을 때 ‘야! 너 예쁘다’ 아니면 ‘야! 너 멋지다’ 아니면 분위기에 따라서 ‘야! 너 우아하다’
하여간 그 남자친구가 예쁘게 볼 것인가라는 염려가 데이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간다, 그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던지 상관없이 내가 편한 대로 한다, 이것은 아직 그 남자를 사랑하는 그렇게 그 남자가 보고 싶은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참 데이트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뭡니까?
만났습니다, 불꽃이 튑니다, 손을 잡습니다, 껴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틈틈이, 그저~ 손잡고 뽀뽀하고 껴안고, 이게 데이트에요.
그러면 이제 여자는, 걱정하고 최대한으로 예쁘게 꾸미고 나갔는데 남자가 보고 ‘야~! 너 왜 이렇게 예뻐?’ 하고 그냥~ 끼어 안고 손을 잡고 손등에다 뽀뽀하고 이럴 때, 여자는 황홀해서 어질어질한 거지요, 이제.

이게 바로 데이트에요.
이게 데이트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 데이트와 똑같다 이겁니다, 똑같은 상태가 바로 예배라 이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처럼 참 막연한 말씀, 추측성이 난무하는 예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영이 뭐냐?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이 땅, 인간에 대한 삼분법적, 이거 뭐 전혀 성서적이지 않은 인간관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그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 영이 뭐냐? 어떻게 영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영, 혼, 육으로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혼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마음의 움직임 말고는, 우리의 액션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영이라는 게 있다 해도 그런 세계가 있어도, 그것은 우리의 인격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의 작용이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
신령으로 한다고 또 번역이 돼 있잖아요? 개혁한글성경에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한다, 뭐 마음을 다한다, 또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냥 막연한 겁니다.
그냥 잘 한다는 뜻이겠지 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냥 잘 하고 그냥 정성껏 그냥… 정성이 뭔지도 몰라요, 뭐가 정성입니까? 옷 다려 입으면 정성입니까?
그럼 무슨 뜻이냐?

영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려면 먼저, 예배가 뭔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배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스퀴네오'
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프로스'라는 단어와 '퀴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프로스'라는 단어는 전치사로서 '~을 향하여' '~에 접근하여' 이런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퀴네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무슨 뜻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는 단어인데, 앞에 전치사는 ‘프로스’라는 전치사이고 ~을 향하여 다가간다는 그런 방향의 전치사이고, ‘퀴네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 같습니까?
희한하게도 ‘키스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스퀴네오’.
예배를 드린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 대상에게 접근해서 가까이 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 대상에게 입을 맞추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면,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하는 장면을 떠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가가 이해가 가십니까?

자, 이제 생각해 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먼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같은 경우에,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인격을 말합니다.
인격이 뭐냐?
‘나’라는 의식이 있는 마음이 인격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인격이 육체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무슨 뜻일까요?
육체가 되었다는 얘기가 로마서라든지 바울서신 속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성경에서 쓰는 단어의 용법을 보면, 어떨 때 육체가 되었다 그러느냐, 우리 마음이 이 육체를 통해 접하는 상황들에 의해서 장악될 때.
육체를 통해 만나는 사람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육체를 통해 만나는 사건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처럼 육체를 통해서 만나는 이 세상에 의해서 관심이 침투되고 장악되고, 우리 마음이 침투되고 관심에 의해서 장악될 때, 이때 사람의 마음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매개로 해서 접하는 상황에 의하여 마음이 지배될 때, 육체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영, 혼, 육 삼분법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영이라고 불리는 상태로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무슨 말입니까?
애인의 이름이 철수입니다.
그런데 데이트하러 나가기 전에, 온통 철수 생각뿐입니다.
철수가 보고 싶어서 몸이 안달이 나있고, 아~무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철수만이 마음에 관심이고,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 바로 이 상태가 그대로 옮겨 온다는 겁니다.
철수를 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이 보고 싶고, 영이신 하나님이 마음에 그리워서 마음이 온통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에 의하여 침투되고 장악되어진 상태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만나면 애인이 나를 보고 예쁘다고 할까 하는 염려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보고 싶고 그립다 그래서 무조건 ‘프로스’,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서 ‘퀴네오’, 하나님께 입 맞춘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예쁘다고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예쁘다 그러시고 마음에 맞아 하시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라는 얘기입니다.
데이트할 때와 똑같은 거예요.
보고 싶지요, 그리고 만났을 때 그가 나를 예쁘다고 하겠는가를 묻지요? 그리고 만나서 끼어 않고 입 맞추지요.
이게 데이트 아닙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야 됩니다.
마음에 가득해야 돼요, 마음이 장악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 마음이 장악된 상태가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예쁘다고 하시겠느냐? 라는 문제가 바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고 싶었고, 하나님이 날 보고 예쁘다고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입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발등에 맞추든 하나님의 손등에 맞추든, 하나님의 입에 입을 맞추

든, 하나님의 뺨에 입을 맞추든,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렇게 할 때 완전히 뒤집어진다 이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얘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이 장면이 참 이상하다고 하는 점에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하면, 우리가 읽지 않은 2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여자가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동네사람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을 전도하느냐 하면, '나에게 있었던 일을 알아맞힌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선지자가 아니냐?' 하고 전도를 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여자가 기뻤을까?
도대체 얼마나 기뻤기에 이렇게 자기가 가져가야 될 물동이도 놔두고, 예수님 물 떠달라는 얘기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 물도 잊고 예수님 떠줄 물도 잊고 동네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자기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얼룩진, 수치스러운 삶의 모습 때문에, 자기를 경멸하던 자들이고 자기를 조소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자기의 그 얼룩진 삶 때문에 자기를 조소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얼룩지고 수치스러운 삶을 드러내서 '나의 수치스러운 삶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선지자를 와서 보라'고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과격한 변화가 있었을까? 예수님을 단 한번 만났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믿지만 이 여자와 같은 전도의 폭발력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 여자와 같이 과격한 기쁨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이어서 온 동네 전체를 다 예수를 전도해서 믿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특별히 심오하고 비밀스러운 천국의 내막을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1일 전도훈련을 특별히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가 1일 제자훈련을 특별히 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 내용을 가만히 보면 특별하게 이 여자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여자는 뒤집어 졌을까요? 그리고 왜 우린 이렇게 잠잠할까요?
여기에 내막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는 일인데, 이 여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난 현장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어떻게 이 여자가 진리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나와 너의 관계에서 '나'가 생기지 않습니까, '나'라는 의식 안에 내용이 생깁니다.
'너'가 남편이면 나는 아내가 됩니다, '너'가 자식이면 나는 엄마나 아빠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너'가 있어야 나의 내용이 채워지는데, 이 여자는 지금 여섯 번째 살고 있는 남자, 남편이 되어줄 마음이 전혀 없는 남자와 같이 동거합니다. 왜 동거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최소한의 울타리로서 붙어 살고, 그것이 부도덕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엄마라는 내용으로 나를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랑 같이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딸이라는 내용으로 채우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도 '너'가 되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수가성의 마을주민이라는 '나'라는 의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가 마을의 사회로부터 완전히 제외되어 버리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의식은 있는데, 그 내용을 채울 '너'가 없어서, 이 여자의 마음속에 폭풍 같은 갈증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휘몰아치는 갈증을 가지고 이 여자가 살기 위해서 찾아 나선 '너'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의 과거를 다 얘기하시는 것을 보고 선지자라는 확신을 가진 다음에, 이 여자가 제일 먼저 꺼낸 얘기가 예배의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이 꺼내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예배라는 말을 여자가 꺼내었다는 겁니다.
여자의 관심이 예배였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나'를 채울 수 있는 '너'를 이 땅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지막 보루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너'로 해서 '나'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상태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너'가 되어 주실 수 있다고 이 여자로서는 마지막 보루를 붙잡고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선지자인 걸 확인한 뒤에 곧바로 예배 얘기를 꺼낸 것을 보면 이 여자는 이제, 주님 하나님만이 '너'가 되어 주셔서 이 공허하게 비어있는, '나'라는 의식의 주머니에 내용이 되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찾는데, 이게 데이트의 첫 번째, '영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수가마을 가까이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한다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니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물어봅니다.
이거 왜 물어봤을까요?
'진리 안에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배를 그리심 산에서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면 만난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도대체 만나는 증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입맞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마음속에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맞아 하시는 것일까?'
마치 데이트할 때, 만나면 남자친구가 나를 예쁘다 할까 안 할까 염려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기 때문일까? 내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과 입맞추는 경험이 없는 걸까? 뭐가 잘못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보고 싶은데, 하나님과 입 맞추는 경험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자기만족에 끝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하나님을 '너'로써, 상대로써 찾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너'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만났으면 손이라도 접촉하는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께 입을 맞추는 게 예배라면, 입 맞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없냐? 궁금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선지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라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쁘게 보십니다.
주님을 예쁘게 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를 예쁘게 보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으십니다.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영과 진리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과 연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의 모든 '너'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나'라는 의식이 비게 됩니다, 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이 육체를 통하여 만나게 되는 모든 '너'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다~ 죽게 될 때, 내 마음 안에 '나'라는 의식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내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로서도 죽고, 남편으로서도 죽고, 뭐 어느 교회 목사님으로서도 죽고, 직장인으로서도 죽고, 이 세상 몸 때문에 생긴 모든 나의 내용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때 폭풍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생깁니다.
데이트의 첫째 조건이 완성되는 것이고, '영 안에서'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주님과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 우편에 앉아계신 그곳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입 맞추기를 원하는,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접근하여 입맞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연합함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입 맞추게 될 때에, 이 여자에게 일어났던 과격한 이 변화가 동시에 우리의 변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출발해 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달린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은 자가 되는 동시에, 이 세상 모~든 거에 대하여 죽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너'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에 강~렬하게 휩싸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까지 가 계신, 그 길을 따라 가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그리워 할 때, 하나님과 입 맞추는 역사가 경험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데이트하러 가는 한 아가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기어코 하나님과 입 맞추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며, 그러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에서 결코 떨어지는 순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